

# 힐러리에 맞설 버니 샌더스 그는 누구인가?

## 美대선 돌풍 '버니 카툰 인기'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일한 차이점은 대기업이 휘두른 주먹에 무릎을 꿇는 속도 뿐이죠"(53쪽)

"버니는 브루클린과 롱아일랜드를 오가며 페인트 사업을 한 아버지를 보면서 희곡 '제일즈'의 죽음에서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는 애처로운 주인공 윌리 로먼을 떠올렸다"(119쪽)

"1972년 버니는 자유연합당의 버몬트 주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소규모 제3당의 30세 무명 정치인인 버니는 예상대로 완패했다"(151쪽)

"버니는 진보진영에서 힐러리에 맞설 도전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난한 사람과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열정을 가진 누군가가 말이다"(181쪽)

무소속 상원의원으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어 버니 샌더스(75)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탈 제조기'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이번의 주인공으로 손꼽힌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혔지만 샌더스가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버니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샌더스 현상'의 뿌리를 담은 카툰이다. 로버트 케네디 언론상을 수상하고 풀리처상 최종 후보에도 오른 시사만화가 테드 룰(53)의 최신작이다. 꼼꼼한 자료조사와 샌더스 의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계의 아웃사이더에서 약자의 대변자로 떠오른 샌더스의 이야기를 특유의 캐리커처와 함께 생생하게 들려준다.

샌더스의 과거 일화를 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 1960년대 말 뉴욕시 브루클린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샌더스는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다. 다른 학생들은 교칙 개정 같은 일반적인 공약을 내세웠으나 그는 특이하게도 한국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샌더스는 3등으로 낙선했지만 당선자가 샌더스의 공약을 받아들여주면서 모금한 돈은 아동구호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해 한국에 전달됐다.

샌더스에 대한 미국인들의 열광과 지지 배경에는 미국 민주당의 보수화가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신좌파'는 민주당 내 주요 세력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민주당 진보세력은 끊임없이 위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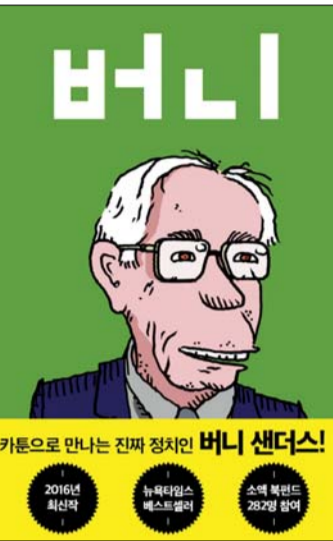
'돌아온 민주당 진보' 샌더스를 지지하는 테드 룰은 샌더스가 폴란드 이민자의 아들로 녀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어릴 적부터 늘 약자 편에 있고 정치에 입문해서도 놀랄 정도로 일관된 모습을 보인 점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유대인 출신인 샌더스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오바마 정부의 드론 암살 작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재미 칼럼니스트 박상현이 '왜 밀레니엄 세대는 버니 샌더스에 열광하나?'라는 글로 샌더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샌더스 열풍의 키워드는 '의료보험과 교육'이라는 분석이 있다. 샌더스는 민간보험인 오바마케어와 달리 '공보험'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제시했다. 또 대학등록금 무료도 샌더스가 내놓은 '사이다 공약' 중 하나다.

샌더스의 유세장에는 미국 젊은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저자는 그들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보여준다고 전한다.

이들은 2000년을 전후해 성인이 된 밀레니엄 세대로 정부가 의료와 교육을 책임



'버니' 카툰 224쪽 1만 38000원

자는 유럽식 사회주의를 환영한다. 테드 룰 지음, 박수민 옮김 224쪽, 1만3800원, 모던타임스 /정해은 기자

## 정읍기적의도서관 27일까지 '한권의 책' 시민투표 실시

정읍기적의도서관이 내달부터 전개될 '한 권의 책' 독서운동과 관련 후보도서를 대상으로 시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기적의도서관은 지난 달부터 시민추천을 통한 1차 심의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청소년과 어린이 함께 읽을 일반용 후보도서를 선정했다.

후보도서는 일반용 도서는 ▲시를 읽은 그대에게(정재찬/휴머니스트)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순원/실천문학사) ▲엄마 인문학(김경진/김경진), 어린이용 후보도서는 ▲강제의 비밀(최은영/어린이나무생각) ▲시리우스에서 온 아이(윤숙희/북멘토) ▲우산도서관(최은옥/창비)이다.

투표는 이달 27일까지 온·오프라인(online)으로 진행하고 당일 각 1권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는 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 투표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17개 도서관과 지역 내 초등학교 등에서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적의 도서관은 '독서가 최종 선정되면 내달 23일 선포식을 갖고 전 시민과 함께 10월까지 릴레이 독서 프로그램을 펼치고 다양한 공감 나눔 문화행사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은 전 시민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공감하는 과정을 나눔으로써 정서적인 일체감과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중장기적인 독서문화운동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http://jillib.jongseup.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539-645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 영화 '귀향' 미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개봉

### 미주 한인사회에서 처음 흥행 불세 지퍼

### 큰 충격과 슬픔 공유하는 등 뜨거운 반응

미주 한인사회에서 처음 흥행의 불씨를 담은 영화 '귀향(鬼郷)'이 뉴욕 한복판 맨해튼에서도 개봉하게 꽤 비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화배급사인 K무비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5일부터 맨해튼 AMC 엠파이어 25와 퀸즈 AMC 로우스 베이티어스 6 등에서 귀향을 개봉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뉴저지에서는 에지워터 멀티플렉스 시네마스, AMC 스타플렉스 릿지필드와 12에서 상영을 시작하고 시카고와 산호세, 시애틀, 애틀랜타, 샌디에이고 등 미주요 도시에서도 개봉한다.

이에 앞서 11일엔 로스앤젤레스와 델라웨어 미주 개봉의 테이프를 끊었고 18일엔 캐나다 토론토(Cheplex Empress Walk)와 밴쿠버(Silvercity Coquitlam & VIP)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또한 호주에서도 이달중 상영을 시작한다.

한국에서 흥행몰이를 벌이고 있는 영화가 비슷한 기간 미국 등 해외에서 연이어 개봉되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다.

특히 미주한인들은 귀향이 제작완료 후에도 한국에서 극장을 잡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귀향' 영화보기 캠페인에 앞장선 바 있어 이번 개봉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다.

후반작업을 하던 지난해 7월엔 조정래 감독이 직접 날아와 뉴저지에서 사상 첫 하이라이트 시사회를 가졌고 한국 개봉에 앞서 미주사회를 통해 귀향의 관심을 환기시킨 것도 미주한인들이었다.

지난 1월23일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28일 코네티컷대학교와 브라운대학교 29일 워싱턴DC 노던 버지니아 칼리지, 30일 뉴저지 에지워터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미주 사회가 이뤄지면서 귀향에 대한 관심을 본국에 전달하는데 일조했다.

당시 뉴저지사회에선 펠리세이즈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 하원의원 등 주류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미국인들도 큰 충격과 슬픔을 공유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전퇴보(일본전범기퇴치시민모임) 백영현 공동대표는 "한국 언론이 '귀향'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왔다"면서 "감독은 14년을 버텨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볼 두시간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해외동포와 국민 전체가 '귀향' 보기 운동이라도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일려진대로 '귀향'은 조정래 감독이

2002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강인출(89) 할머니의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을 본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제작비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만 명이 넘는 일반인들의 후원과 배우, 스태프 등 제작진의 재능기부가 이어졌고 어렵게 개봉됐으나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지난 12일 300만명 관객을 돌파했다.

미주에서 가장 먼저 개봉된 로스앤젤레스와 델라웨어에서 초기 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한 '귀향'이 북미에서도 흥행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해은 기자



영화 '귀향' 포스터

### 한국전통문화재단 내일 '계승·개발·창조' 전 개최

전통문화의 함 '계승·개발·창조' 전이 오는 19일 한국전통문화재단 3층 제2기획실에서 열린다.

이번에 전시되는 28점의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통문화 융복합 아이디어 공모전의 결과물로, 선정된 개발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발과정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했다.

시제품은 전통문화자원애 소재·기술·스토리를 가미해 현대적 감각의 보석함, 조명, 액자, 화기 등의 생활용품으로 재탄생 됐다. /정해은 기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음향기술 전문교육생 모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음악 녹음·믹싱 분야 교육생 모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에서는 음악·음향 제작 분야의 제작자와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2016년 1차 음향기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15명을 모집한다.

교육 분야는 Protools 이용한 음악 녹음 및 믹싱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다.

모집된 교육생들의 교육 기간은 주말과 월요일을 제외한 4월 12일부터 4월 22일 까지다.

지원서류 접수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문의 281-4190 /정해은 기자

### 완주문화재단 심사 거쳐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에서는 20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예술인이 참여하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었다.

총 42개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지역마을 등이 사업에 신청을 하여 20개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선정되었다.

문화예술단체가 갖고 있는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총 14개 팀이 참여하여 6개 팀이 선정되었다.

또한 문화예술육성지원(4팀), 지역주민과 예술가 협력사업(2팀), 창작공간 지원사업(2팀), 주민참여형 상설공연(1팀), 찾아가는 예술포차(3팀), 생활공방 운영(2팀)이 선정되었다.

총 10개 사업분야 중 공공예술 프로젝트, 주민이티브레터 양성, 스타다이어 운영 사업은 해당 선정단체가 없음에 따라 재공고 할 예정이다.

관찰관 상임이사는 "완주문화재단의 2016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전문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완주군의 지역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문화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과 주민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2016 문화예술지원사업」은 4월부터 계획적으로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별로 선정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다.

사업신청 결과 안내는 완주문화재단(http://www.wfca.or.kr) 또는 http://www.완주문화재단.kr), 완주군청(http://www.wanjug.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063-282-3955로 문의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18일>

<p><b>▷쥐띠</b></p> <p>46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때니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지출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겠다.</p> <p>50년생: 이성애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p> <p>72년생: 공과 사은 정확히 해야 뒤에 일이 없겠다.</p> <p>84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을 도모하기에는 좋은 운이다.</p>	<p><b>▷소띠</b></p> <p>49년생: 지나친 고집은 삼가라.</p> <p>61년생: 여성은 늦은 밤 외출을 삼가야 하는 운.</p> <p>73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상황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려라.</p> <p>85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양보하며 우회적으로 말을 해야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p>	<p><b>▷호랑띠</b></p> <p>50년생: 저물에는 고난이 있으나 이겨내면 끝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p> <p>62년생: 물 출렁기듯 상황에 따라가면서 대처하라.</p> <p>74년생: 익숙한 일이라고 믿더라도 방심하면 실수가 따르니 주의하라.</p> <p>86년생: 상대에게 통보하는 식의 행동은 금물.</p>	<p><b>▷토끼띠</b></p> <p>51년생: 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니 혼자 버텨볼 움직여 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p> <p>63년생: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구실을 주의하라.</p> <p>75년생: 동성의 조언이 아닌 이성의 조언을 구하면 해결방법이 보인다.</p> <p>87년생: 급하게만 서두르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p>
<p><b>▷용띠</b></p> <p>52년생: 자신의 운수를 지키고 경거망동을 삼가야 하는 운이다.</p> <p>64년생: 고민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해결되는 운.</p> <p>76년생: 사소한 일에 오해가 생기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하라.</p> <p>88년생: 새로운 것을 취하기보다는 옛것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p>	<p><b>▷범띠</b></p> <p>53년생: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속이 없는 운.</p> <p>65년생: 앞으로 나가기의 때가 아니다. 내실을 다지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운이다.</p> <p>77년생: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p> <p>89년생: 경쟁자, 동기진로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지중하라.</p>	<p><b>▷말띠</b></p> <p>54년생: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p> <p>66년생: 매사 활동하기 전에 미리 말로 신뢰고 주고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p> <p>78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90년생: 문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p>	<p><b>▷양띠</b></p> <p>56년생: 심적으로 불안한 운이다.</p> <p>68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유리한 위치고 얻을 수 있는 운.</p> <p>79년생: 조심스럽게 전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p> <p>91년생: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운이다.</p>
<p><b>▷원숭이띠</b></p> <p>55년생: 급하게 목적 달성을 허려 하지 마라.</p> <p>67년생: 두 수근 앞서게 되면 판단오류가 생기는 운.</p> <p>80년생: 지키지 못한 약속은 하지 마라. 자신의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게 된다.</p> <p>92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운.</p>	<p><b>▷닭띠</b></p> <p>57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69년생: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운.</p> <p>81년생: 한쪽에만 집중하기에도 힘이 드는데 어찌 둘을 얻을 수 있겠는가.</p> <p>93년생: 빛 사람의 조언에 헤아림이 들어 있으니 도움을 받아라.</p>	<p><b>▷개띠</b></p> <p>48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쉽게 따르는 운이다.</p> <p>59년생: 급진론이 익혀 있는 혈국이나, 무리한 추진은 삼가고 내실을 다져야 할 운이다.</p> <p>70년생: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p> <p>82년생: 자신의 위치고 파악하고 무리한 시도는 삼가야 하는 운이다.</p>	<p><b>▷돼지띠</b></p> <p>47년생: 큰 움직임을 피하라.</p> <p>59년생: 타인과의 중요한 만남은 다음으로 미뤄라.</p> <p>71년생: 혼자서 해야 하는 운이나 결과는 예상외로 좋다.</p> <p>83년생: 이성애 대한 주의가 요하는 운이니 조심하고, 일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p>